

산업플랜트 기술전 11월 21-24일 CECO 개최

국내에서 처음으로 플랜트 기자재와 기술을 전시하는 <국제산업플랜트 기술전>이 11월 21-24일 창원 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된다.

경상남도에도 따르면, 경남과 창원시가 주최하고 글로벌인터내셔널이 주관하는 전시회에는 미국의 벨텐와 알파와이어, 독일의 메세, 네덜란드의 HGG 등 14개국 139개 기업이 참가해 현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 플랜트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모색하고 첨단 기술정보 교류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STX엔진과 대경테크, 대정밸브, 원진중공업 등이 참가한다.

아울러 CECO에서는 8개국 49개사 65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열어 플랜트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수출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는 경남과 울산지역에 분포돼 있는 조선해양, 가스석유화학, 발전담수, 공장플랜트 등 국내 경기를 이끄는 대표 산업을 대상으로 각종 기자재와 기술을 전시해 생산 및 수요구조는 물론 시장 전망과 기술 개발 동향을 한 자리에서 살펴 볼 수 기회가 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7/11/19>